

2026.10.04 | 가격 2026-10-02 · 재무 2026-06-30 | AI 기업분석

01 / 20

핵심 요약: 판매 기록만으로 이익을 확정할 수 없다

3분기 판매는 확인됐고 3분기 이익은 아직 발표 전이다.

확인 사실	투자 논점	다음 검증
3Q 도매 +7.85%	판매→수익 연결	믹스·인센티브·관세
2Q OPM 7.96%	이익률 유지	환율·충당부채
CFO 7.17조	현금 귀속	투자·배당·자사주

10월 2일 관측 종가 113,200원과 6월 말 검토 재무제표를 사용한다. 10월 1일 회사가 발표한 3분기 도매 판매는 846,764대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7.85% 늘었다. 이는 판매 실적이지 연결 매출·영업이익의 확정치가 아니다.

기아의 핵심은 미국 HEV와 유럽 EV의 서로 다른 수익구조다. 전동화 물량 확대가 평균판매가격을 올려도 EV 판촉비·품질보증충당금·관세가 이익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차량 대수보다 순가격과 비용의 연결을 먼저 본다.

충분한 현금과 낮은 설비 부담은 완충 장치다. 그러나 현금이 배당·소각으로 귀속될지, PBV·로봇·관계회사 투자에 투입될지는 별도 결정이다. 본 보고서는 로봇의 먼 미래 가치를 현재 이익 모델에 더하지 않았다.

출처: S1 · S2 · S5 | 원문 링크는 20쪽 및 웹 보고서에서 확인

2026.10.04 | 가격 2026-10-02 · 재무 2026-06-30 | AI 기업분석

02 / 20

사업 구조: HEV·EV·PBV의 역할은 다르다

주력 완성차의 현금과 신규 모빌리티의 비용을 나눈다.

영역	수요 기반	경제성 변수
HEV·RV	미국·고부가 수요	차종 믹스·현지 공급
대중형 EV	국내·유럽	판촉비·원가·규모
PBV	상용 운영 비용	초기투자·계약·재구매

기아는 승용·RV·상용차를 생산·판매하고 소형 EV부터 대형 SUV, 목적기반차량 PBV까지 범위를 넓힌다. 같은 판매 증가라도 제품 가격, 옵션, 생산지역, 유통망, 보증 비용이 달라 이익 증가율이 같지 않다.

미국에서는 텔루라이드·스포티지 HEV의 물량과 현지 생산 비중이 중요하다. 유럽에서는 EV2·EV4와 PV5의 판매 확대가 전략적이지만 중국 전기차와의 가격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출시 계획을 승인된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PBV는 단순한 차종 추가를 넘어 운송업체의 가동률과 적재·배송 비용을 줄여야 한다. 판매 차량 대수, 서비스 반복매출, 개발비·생산라인 비용을 분리해야 성장의 경제성이 보인다.

출처: S1 · S2 · S5 | 원문 링크는 20쪽 및 웹 보고서에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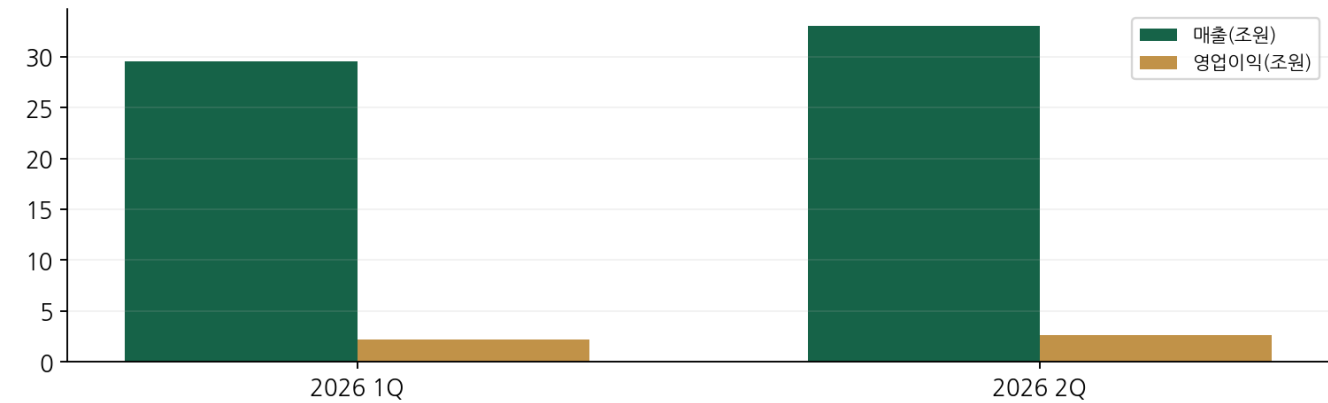
2026.10.04 | 가격 2026-10-02 · 재무 2026-06-30 | AI 기업분석

03 / 20

공식 실적: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감소의 동시 발생

정정 반기보고서의 3개월·누적 열을 분리했다.

검토 반기 재무제표에서 분기 금액 분리



항목·조원	1Q26	2Q26	H1 합계
매출	29.50	33.04	62.54
영업이익	2.21	2.63	4.83
OPM	7.47%	7.96%	누적7.73%

2분기 매출 33.0371조원은 전년 대비 12.56% 늘었지만 영업이익 2.6286조원은 -4.93% 변했다.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4.8336조원이다.

상반기 누적에서 2분기를 뺀 1분기 영업이익은 2.2051조원이다. 2분기 순이익 2.3277조원에는 영업 외 항목과 법인세가 반영된다. 분기 영업이익에 4를 곱해 연간 전망으로 삼지 않는다.

출처: S1 | 원문 링크는 20쪽 및 웹 보고서에서 확인

2026.10.04 | 가격 2026-10-02 · 재무 2026-06-30 | AI 기업분석

04 / 20

가장 최근 수요: 9월 도매와 3분기 판매의 의미

해외 증가와 국내 감소를 같은 호황으로 묶지 않는다.

최신 회사 공표	대수	상태
9월 국내	45,705	전년 -6.7%
9월 해외	235,457	전년 +7.5%
3Q 합계	846,764	확정 도매·이익 미발표

9월 회사 공식 도매는 국내 45,705대, 해외 235,457대, 특수 822대다. 국내는 전년 대비 6.7% 감소하고 해외는 7.5% 늘었다. 3분기 국내 140,522대·해외 703,494대·특수 2,748대 합계가 846,764대다.

도매는 생산회사에서 유통망으로 넘어간 수량이고 소매는 최종 고객 판매다. 재고 증가를 동반한 도매 성장은 미래 할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북미 달러 재고·소매·인센티브를 같이 확인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최신 달러 재고 일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3분기 판매 증가가 이익 상향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국내 감소와 해외 증가의 지역 믹스가 긍정적인지, 달러 환율 변화와 EV 할인 부담이 이를 상쇄하는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확인한다.

출처: S5 | 원문 링크는 20쪽 및 웹 보고서에서 확인

2026.10.04 | 가격 2026-10-02 · 재무 2026-06-30 | AI 기업분석

05 / 20

재무상태: 현금은 크지만 전액을 배당 가능액으로 보지 않는다

유동자산·보증충당부채·관계기업 투자를 함께 읽는다.

6월 말	조원	평가상 주의
현금	16.08	영업 필요 현금 포함
재고	16.49	판매·판촉과 대조
부채/자본	65.14%	충당부채도 점검

6월 말 연결 자산 106.83조원, 부채 42.14조원, 자본 64.69조원이다. 현금 16.08조원과 단기금융상품 7.14조원에서 재무상태표의 단기차입·유동성장기부채·사채 1.82조원을 차감하면 단순 유동 순현금은 21.40조원이다.

이 순현금 정의는 장기 예치금·리스·운전자본·충당부채 전액을 포함한 회사 순현금과 같지 않다. 공급망 결제, 보증 수리, 해외 현지 영업을 위한 현금도 필요하므로 모두 즉시 환원된다고 계산하지 않는다.

재고는 전년 말 14.67조원에서 16.49조원으로 늘었다.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는 27.34조원으로 크다. 자산의 장부가가 곧 현금 회수액이나 별도 추가 주주가치인 것은 아니다.

출처: S1 | 원문 링크는 20쪽 및 웹 보고서에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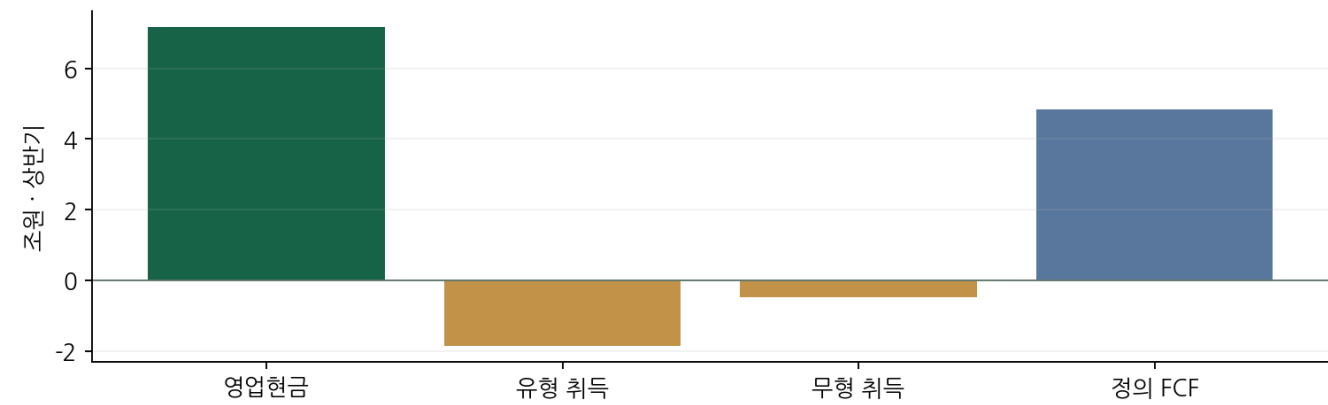
2026.10.04 | 가격 2026-10-02 · 재무 2026-06-30 | AI 기업분석

06 / 20

현금흐름: 정의 FCF와 실제 투자 부담의 차이

CFO 유형·무형 취득액을 명확한 출발점으로 쓴다.

영업현금에서 실제 지급한 설비·무형 취득액 차감



H1·조원	금액	계산 범위
CFO	7.17	실제 현금흐름표
설비+무형 취득	2.33	실제 지급액
정의 FCF	4.83	지분 투자 차감 전

상반기 영업활동현금 7.1671조원에서 유형 취득 1.8482조원·무형 취득 0.4860조원을 빼면 정의 FCF 4.8330조원이다. 여기에 공동·관계기업 지분 취득 0.8635조원을 추가 차감한 잔액은 3.9695조원이다.

실제 상반기 배당 지급은 2.6425조원이다. CFO에는 법인세 지급·운전자본·이자·배당 수취가 이미 포함된다. 순이익에 CFO를 또 더 하거나, 지분 투자와 자회사 투자를 중복 차감하지 않는다.

성장에 필요한 지분 투자·연구개발·신차 비용이 늘면 주주가 쓸 수 있는 현금은 감소한다. 상반기 현금 창출을 2배로 연간화하는 대신 하반기 생산·재고·세금과 투자 계획을 따로 확인한다.

출처: S1 | 원문 링크는 20쪽 및 웹 보고서에서 확인

2026.10.04 | 가격 2026-10-02 · 재무 2026-06-30 | AI 기업분석

07 / 20

업종 변수: 순가격·관세·환율의 이익 연결

원화 약세의 매출 효과와 보증충당금 효과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

변수	개선 조건	악화 조건
순가격	HEV·고급트림 믹스	EV 할인 확대
관세	현지 생산·공급 최적화	수출 비용 증가
환율	판매·비용·헤지 균형	원화 강세·충당금 변동

회사는 2분기 매출원가율 81.7%, 관세 영향을 제외한 비율 79.2%를 설명했다. 단순 차이 2.5%p가 실제 관세 비용의 모든 현금·회계 효과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회사가 설명한 비교 범위를 그대로 표시한다.

판매 믹스가 좋아져도 순가격은 인센티브를 뺀 후 확인해야 한다. 북미 HEV 공급 확대의 이익 효과는 대당 공헌이익과 국내 수출·현지 생산의 배분에 달려 있다. 공식 수치 없는 차종별 이익·관세 환급액은 넣지 않았다.

환율은 수출 수익과 해외법인 비용, 보증충당부채 환산, 헤지 계약을 함께 움직인다. 따라서 매출에 환율 변화율만 곱한 계산을 실제 이익 전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출처: S1 · S2 | 원문 링크는 20쪽 및 웹 보고서에서 확인

2026.10.04 | 가격 2026-10-02 · 재무 2026-06-30 | AI 기업분석

08 / 20

PBV·로봇·관계회사: 옵션의 주주 귀속

간접 지분 가치와 자동차 영업이익을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구분	관측 수준	모델 처리
기존 완성차	검토 실적	이익 시나리오
PBV	회사 판매·계획	비용·수익 검증
로봇 지분	증권사 장기 전망	추가 가치 미가산

KB 5월 원문은 PBV와 물류로봇을 연결하는 장기 비전을 제시한다. 삼성 9월 원문은 성장 투자와 배당 압력 사이의 선택을 강조한다. 사업적 활용 가능성은 있지만 로봇의 판매량·이익·기아로의 배당 시점은 확정 실적이 아니다.

보유 지분을 가치에 더하려면 최신 지분 구조, 추가 출자, 지분 희석, 세금, 현금 송금 제한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EPS에는 지분법 이익 일부가 이미 들어갈 수 있어 같은 자산을 별도로 더하면 중복이 된다.

본 모델은 PBV·로봇의 고정 기업가치를 더하지 않는다. 확정 대규모 수주와 생산 비용·계약 수익이 관측되면 이후 보고서에서 분리 SOTP를 보강할 수 있다. 현재 20페이지를 성장 서사의 숫자로 채우지 않는다.

출처: S1 · S2 · S3 · S4 | 원문 링크는 20쪽 및 웹 보고서에서 확인

2026.10.04 | 가격 2026-10-02 · 재무 2026-06-30 | AI 기업분석

09 / 20

증권사 원문 비교: 같은 목표가 표라도 기준일이 다르다

실제 읽은 기관은 2곳, 삼성 과거 원문은 기관 수에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기관·실제 원문일	목표가·당시	26E 매출/OP·조원	평가
삼성 2026-09-15	170,000원	124.117 / 9.249	26~27 EPS·PER9배
KB 2026-05-11	300,000원	123.103 / 9.399	DCF·장기 로봇 가정
삼성 2026-07-24	210,000원	동일 기관 과거	시점 변화 참고

삼성 9월 15일은 PER 9배를 유지하면서 2026·2027 EPS를 19,331원·19,003원으로 낮췄다. 7월 24일 삼성 원문의 목표 210,000원에서 9월 170,000원으로 바뀐 핵심은 이익 추정이다.

KB 5월 11일의 목표 300,000원은 할인현금흐름과 장기 PBV·로봇 전망을 포함한 당시 판단이다. 5월과 9월 목표 차이는 방법·시간·가정이 모두 달라 단순 평균을 최신 적정가로 제시하지 않는다.

추가 하나·IBK·유진 자료도 검색했지만 본 종목의 읽을 수 있는 추가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원문 미확보 기관의 목표가·고객·실적 추정을 비교표에 채우지 않았다.

출처: S3 · S4 · S6 | 원문 링크는 20쪽 및 웹 보고서에서 확인

2026.10.04 | 가격 2026-10-02 · 재무 2026-06-30 | AI 기업분석

10 / 20

전망 가정: 2027년 수익성을 만드는 관측 항목

출시 예정이 곧 판매 성공이라는 가정을 피한다.

자체 기준 가정	수치	조건
2027 매출	130조원	HEV·신차 공급과 순가격
OPM	8%	관세·판촉·보증 통제
세율·주식수	25%·3.887억주	공시 변화 시 수정

기준 가정은 2027년 매출 130조원·영업이익률 8%·순영업외이익 0.8조원·유효세율 25%다. 회사 가이드스나 증권사 컨센서스가 아니라 비용과 판매를 연결하기 위한 자체 조건이다. 6월 말 자기주식 제외 388,656,043주를 고정 분모로 쓴다.

매출 130조원은 확인된 상반기 62.54조원의 단순 연장이 아니다. 북미 HEV 공급 증가와 유럽 신차 효과가 인센티브 확대를 넘는다는 가정이다. 매출이 늘면서 OPM이 떨어지면 기준 가정의 수익성 부분을 먼저 수정한다.

수요·가격·원가가 동시에 개선된다는 낙관 가정과, 판매는 유지돼도 비용이 남는 보수 가정을 분리했다. 확률은 부여하지 않았다. 실제 신주·소각·자사주 처분이 발생하면 분모도 수정한다.

출처: S1 · S2 · S5 | 원문 링크는 20쪽 및 웹 보고서에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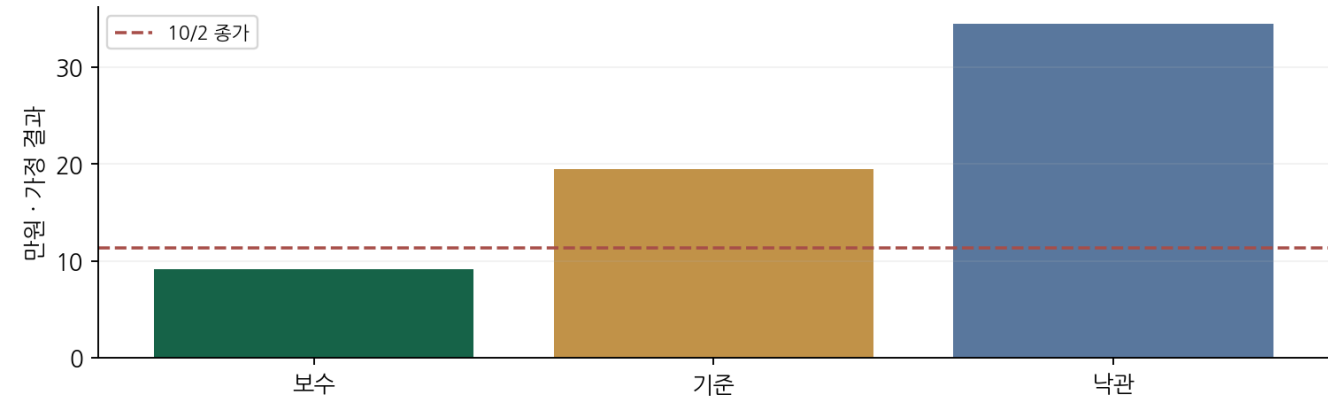
2026.10.04 | 가격 2026-10-02 · 재무 2026-06-30 | AI 기업분석

11 / 20

보수·기준·낙관: 이익과 배수를 함께 공개

확률이나 보장 목표가가 아닌 조건별 가치 계산이다.

2027년 이익×배수 · 확률 없는 조건별 계산



2027 조건	매출/OPM	EPS·원	PER/계산 가치
보수	120조 / 6%	15,245	6배 / 91,469원
기준	130조 / 8%	21,613	9배 / 194,516원
낙관	140조 / 10%	28,753	12배 / 345,035원

각 결과는 (매출×영업이익률+순영업외이익)×(1 - 세율)÷자기주식 제외 주식수×PER로 계산했다. 연결 비지배지분이 작아 자체 모델은 추정 순이익 전액이 모회사에 귀속된다고 단순화했다.

보수는 비용 압박에 낮은 평가를, 기준은 이익률 유지에 중간 평가를, 낙관은 믹스·원가·환원 신뢰 개선에 높은 평가를 동시에 적용한다. 따라서 결과 차이는 영업 개선만의 효과가 아니다. 현재 가격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역산한다.

현금과 관계회사 가치는 EPS 가치에 다시 더하지 않았다. 배수는 자체 가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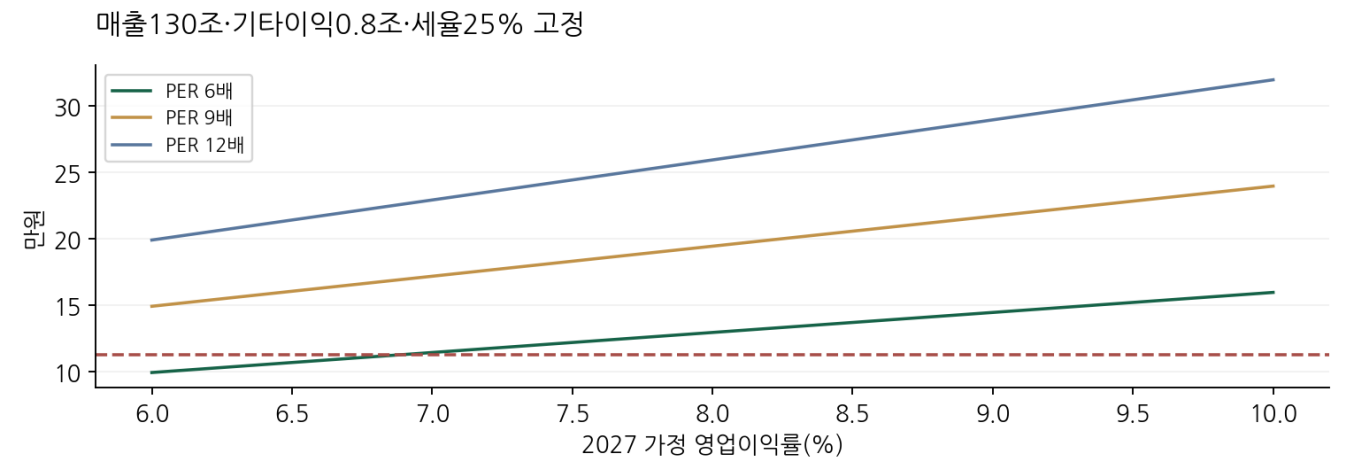
출처: S1 | 원문 링크는 20쪽 및 웹 보고서에서 확인

2026.10.04 | 가격 2026-10-02 · 재무 2026-06-30 | AI 기업분석

12 / 20

가치 민감도: 이익률 1%p와 재평가의 효과

매출·세금·주식수 고정 조건에서 두 축을 비교한다.



기준 매출130조	OPM6%	OPM8%	OPM10%
PER6배	99,574원	129,678원	159,781원
PER9배	149,361원	194,516원	239,672원
PER12배	199,148원	259,355원	319,563원

매출 130조원 기준 OPM 1%p 변화는 세전 영업이익 1.3조원, 세율25% 후 순이익 0.975조원 차이이다. PER9배로 평가하면 주당 가치 차이는 22,578원이다. 이 민감도는 고정 가정하의 계산이며 실제 비용 변화의 예측치가 아니다.

높은 배수는 이익 지속성·투자 효율·환원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회성 판매나 환율 효과에 높은 배수를 붙이면 정상화와 재평가를 이중 낙관할 수 있다. 차트는 독자가 각 가정을 바꿔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S1 | 원문 링크는 20쪽 및 웹 보고서에서 확인

2026.10.04 | 가격 2026-10-02 · 재무 2026-06-30 | AI 기업분석

13 / 20

역산 조건·장부가·배당: 현재 가격이 요구하는 것

역산은 시장의 실제 기대를 직접 관측한 값이 아니다.

자체 역산/관측	값	한계
PER9 필요한 NI	4.89조	배수 가정
요구 OPM	4.40%	다른 조건 고정
가정 DPS7500	6.63%	확정 배당 아님

종가 113,200원에 PER9배를 가정하면 필요한 모회사 순이익은 4.89조원이다. 매출130조·영업외0.8조·세율25% 고정 조건에서 요구 OPM은 4.40%다. 낮은 배수6배면 필요한 이익이 더 커진다.

6월 지배주주 자본을 자기주식 제외 주식수로 나눈 장부가 기준 주당 자본은 166,439원이다. 관측 종가의 장부 대비 비율은 0.68배지만 장부에는 회수 제한·순환 지분·충당 위험이 있다.

배당 6,500·7,500·9,000원을 가정할 경우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으나 이는 향후 확정 배당이 아니다. 지급 정책과 소각·투자 결정은 이사회 공시로 확인해야 한다. 배당 수익률을 금리와 비교할 때 원금 변동도 함께 고려한다.

출처: S1 | 원문 링크는 20쪽 및 웹 보고서에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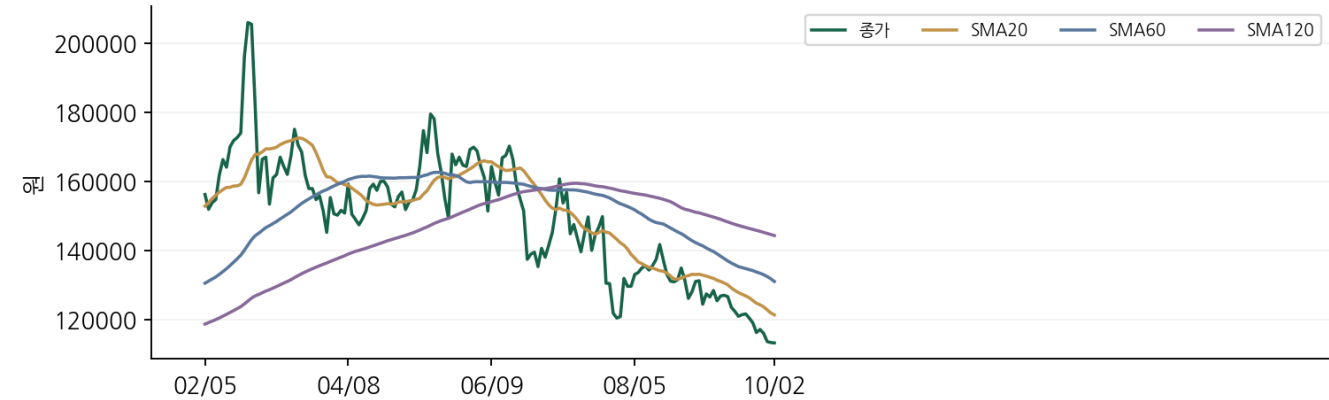
2026.10.04 | 가격 2026-10-02 · 재무 2026-06-30 | AI 기업분석

14 / 20

가격 추세: 세 이동평균과 회복의 순서

10월 2일 관측 종가 113,200원, 전일 대비 -0.09%.

종가와 SMA20·60·120 · 배당 미포함 관측 시계열



관측	수치	해석
SMA20	121,330원	단기 평균 가격
SMA60	131,002원	중기 평균 가격
SMA120	144,288원	장기 평균 가격

종가는 SMA20 대비 -6.70%, SMA60 대비 -13.59%, SMA120 대비 -21.55% 위치다. 이동평균을 회복해도 이익 전망이 자동 개선되지는 않는다. 기업의 실적 확인과 시장의 추세 확인을 별도로 기록한다.

기아는 자동차 수요보다 환율·관세·지역 믹스에 대한 기대 변화가 단기 가격을 크게 움직일 수 있다. 가격 회복은 이익 전망과 환원 공시로 재확인한다.

배당 포함 총수익률과 거래소 수정주가 대조는 미완료입니다. 이벤트·배당락·환율 반전이 시계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처: P1 | 원문 링크는 20쪽 및 웹 보고서에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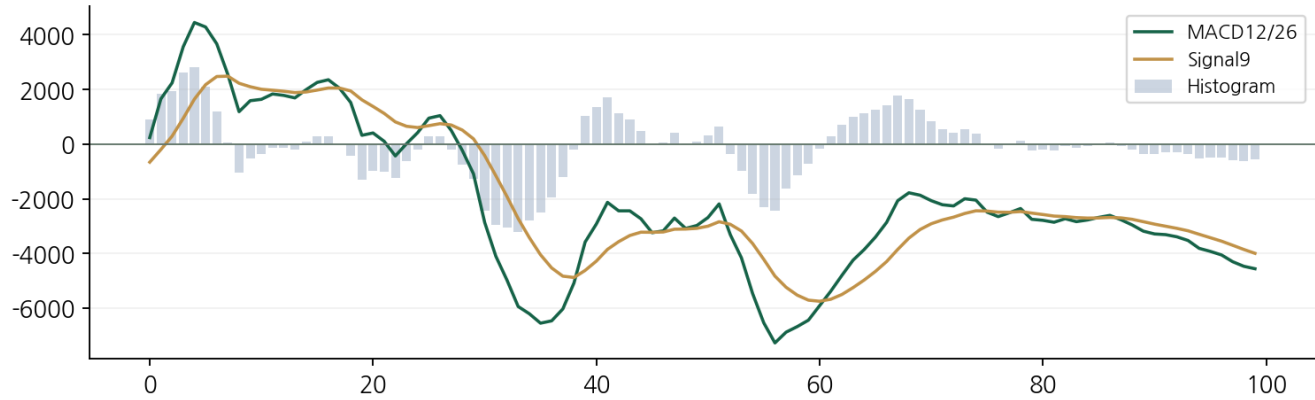
2026.10.04 | 가격 2026-10-02 · 재무 2026-06-30 | AI 기업분석

15 / 20

모멘텀: RSI와 MACD를 함께 읽기

Wilder RSI14 29.03, MACD 히스토그램 -563.6원.

MACD는 EMA 차이 · 최신 100개 거래 관측



지표	값	산식
RSI14	29.03	상승/하락 변화량 Wilder 평활
MACD	-4,558.7원	EMA12 EMA26
Signal	-3,995.1원	MACD EMA9

MACD -4,558.7원과 시그널 -3,995.1원의 차이는 단기·장기 EMA 간격의 변화다. 히스토그램이 양수라도 MACD 자체가 음수라면 약세 안의 속도 완화될 수 있다. RSI 30·70 기준을 확정 매매 신호로 쓰지 않는다.

반등 검증은 일회성 갭 상승보다 20일 평균 가격 유지, 거래량 동반, 다음 공시의 전망 확인을 함께 요구한다. 현재 지표는 300개 관측치의 마지막 값이며 다음 거래일에는 바뀐다.

배당 포함 총수익률과 거래소 수정주가 대조는 미완료입니다. 이벤트·배당락·환율 반전이 시계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처: P1 | 원문 링크는 20쪽 및 웹 보고서에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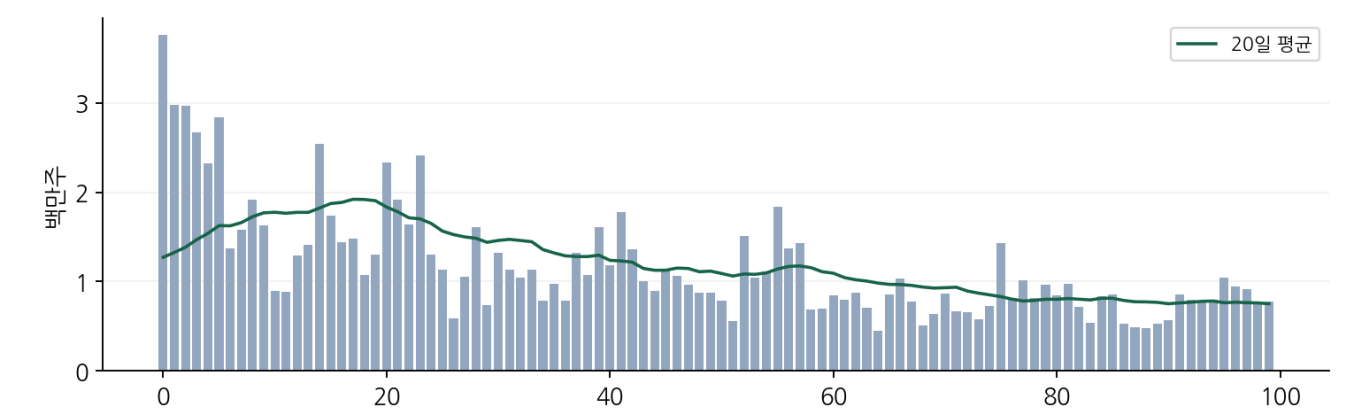
2026.10.04 | 가격 2026-10-02 · 재무 2026-06-30 | AI 기업분석

16 / 20

거래량·ATR: 가격 움직임의 비용

최근 거래량 780,472주 · 직전 20일 평균 대비 1.03배.

거래량과 20일 평균 · 권리락·수급의 단독 인과 해석 금지



항목	관측	활용
ATR14	3,834원	포지션 크기·변동 범위 참고
거래량 비율	1.03배	당일/직전20일평균
20일 가격 범위	110,600~132,700	권리락·공시 확인

ATR14는 3,834원, 종가의 3.39%다. 전일 종가와 당일 고저가로 구한 True Range를 Wilder 방식으로 평활했다. 이 수치는 평균 변동 범위이며 손실 상한이나 하락 확률이 아니다.

20거래 관측 고가 132,700원·저가 110,600원은 실제 거래 범위다. 돌파나 이탈을 확인할 때 공시·권리 행사·지수 변동·거래량을 함께 살핀다. 특정 가격의 지지·저항 지속을 보장하지 않는다.

배당 포함 총수익률과 거래소 수정주가 대조는 미완료입니다. 이벤트·배당락·환율 반전이 시계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처: P1 | 원문 링크는 20쪽 및 웹 보고서에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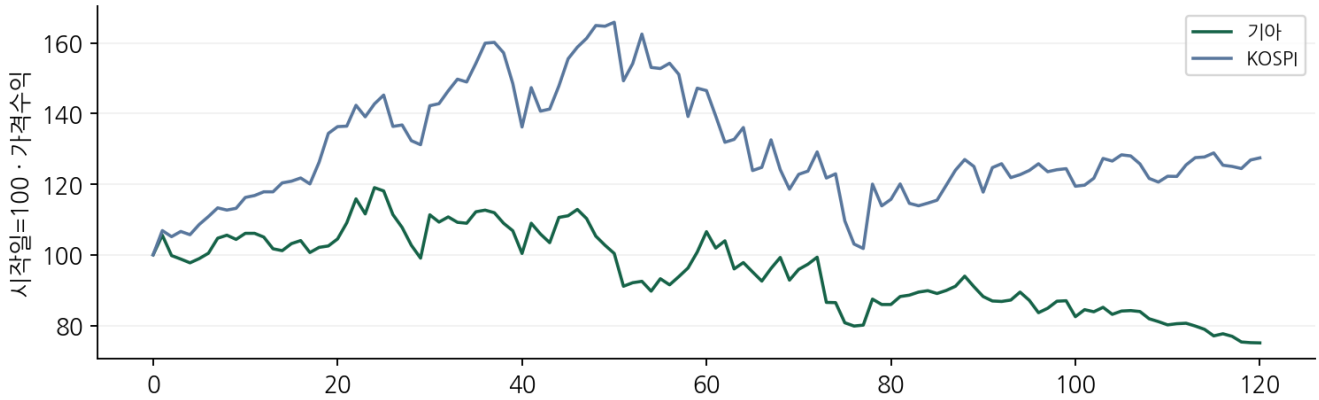
2026.10.04 | 가격 2026-10-02 · 재무 2026-06-30 | AI 기업분석

17 / 20

상대 성과: 시장 방향과 기업 고유 변수 분리

20거래 관측 상대성과 -15.72%p (KOSPI 대비).

같은 거래일을 맞춘 지수 대비 가격 성과



기간	종목	지수	차이
20거래 관측	-9.00%	+6.72%	-15.72%p
60거래 관측	-29.56%	-13.01%	-16.55%p

20거래 관측 가격수익률은 종목 -9.00%, 지수 +6.72%다. 60거래 관측은 종목 -29.56%, 지수 -13.01%이며 두 값의 차이는 -16.55%p다. 시작-종료 거래일을 정확히 맞췄다.

차트는 121개 동일 거래일의 첫 값을 100으로 정규화한 가격 지수다. 배당·신주인수권·수수료·세금을 포함한 투자자 총수익과는 다르다. 시장을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자산의 저평가를 입증할 수 없다.

배당 포함 총수익률과 거래소 수정주가 대조는 미완료입니다. 이벤트·배당락·환율 반전이 시계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처: P1 · P2 | 원문 링크는 20쪽 및 웹 보고서에서 확인

2026.10.04 | 가격 2026-10-02 · 재무 2026-06-30 | AI 기업분석

18 / 20

리스크: 서로 상쇄되지 않는 세 가지 부담

완충 현금의 수익성·투자·주주 귀속 위험을 없애지는 않는다.

위험	관측 자료	논리 변화
EV 경쟁	인센티브·순가격	매출 성장 질 저하
관세·품질	회사 비용 브리지	OPM 하향
현금 귀속	투자·소각·배당 공시	환원 프리미엄 재검토

첫째, EV 가격 경쟁이 신차 판매 증가를 할인 비용으로 바꿀 수 있다. 둘째, 미국 관세와 현지 공급 제약이 HEV 호조의 이익을 줄일 수 있다. 셋째, 품질 이슈·보증충당금 변경은 판매량과 무관한 비용을 만들 수 있다.

현금이 많아도 그룹 차원의 지분·로봇·모빌리티 투자로 이동하면 배당 여력의 시장 기대가 달라진다. 관계회사 보유 지분의 재편은 기회와 거래 조건 위험을 동시에 갖는다. 최신 구체 거래를 확인하기 전 재편 프리미엄을 숫자로 부여하지 않는다.

매출과 이익률이 동시에 악화되거나 현금 창출이 지분 투자에 지속 소진되면 낮은 PER·PBR만으로 투자 논리를 유지하기 어렵다. 기술적 반등을 이 위험의 해소로 간주하지 않는다.

출처: S1 · S2 · S5 | 원문 링크는 20쪽 및 웹 보고서에서 확인

2026.10.04 | 가격 2026-10-02 · 재무 2026-06-30 | AI 기업분석

19 / 20

논리 수정 조건과 관측 일정

확정된 과거 공표와 미확정 미래 발표일을 구분한다.

일정/조건	상태	확인 항목
2026-10-01 판매	회사 공표 확인	도매·소매 차이
다음 분기 실적	정확한 일자 미확보	OPM·관세·판촉
환원·투자 결정	일정 미확정	실제 현금·주식수

10월 1일 9월·3분기 판매 발표와 9월 16일 정정 반기보고서는 확인 완료다. 3분기 실적 발표의 정확한 날짜는 이번 확보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10월 말 등 관행을 확정 일정으로 적지 않는다.

다음 실적에서 3분기 판매 증가에도 OPM이 기준8%를 지속 밑돌고 판촉·충당 비용이 확대되면 기준 시나리오를 하향한다. 반대로 HEV 믹스와 현지 공급 증가가 비용을 넘고 정의 FCF가 투자 후에도 개선되면 이익·배수의 상향을 각각 검토한다.

자사주 매입·소각은 결정, 실제 취득, 소각 완료를 나눠 본다. 공시의 실질 주식수 변동과 신규 지분 투자를 확인한 뒤 주당 계산을 갱신한다. 투자 전에는 이 보고서 발행 이후 공시도 확인해야 한다.

출처: S1 · S5 | 원문 링크는 20쪽 및 웹 보고서에서 확인

2026.10.04 | 가격 2026-10-02 · 재무 2026-06-30 | AI 기업분석

20 / 20

방법론·출처·보강 항목

AI가 공개 원문을 읽고 계산한 정보이며 사람의 전문가 검수를 표시하지 않는다.

자료 범위	확보	미확보/한계
공식 실적·최신 판매	반기·9월 도매	3Q 이익 발표 전
증권사 원문	삼성·KB 2기관	동일 기준일 컨센서스
시장 관측	300일 OHLCV	총수익·거래소 대조

가격 기준은 2026-10-02, 공식 재무 기준은 2026-06-30이며 기아는 2026-09-16 정정본을 사용했다. 백만원을 조원으로 변환하고 누적 2분기로 1분기를 분리했다. 재무상태 등식과 CFO 차감, 시나리오·기술지표는 보존 관측자료로 코드 검산했다.

표와 차트는 자체 작성했으며 증권사 PDF·차트는 재배포하지 않는다. 실제 PDF 원문 기관2곳을 발행일과 함께 표시한다. 추가3번째 기관 원문·최신 딜러재고·차종별 공헌이익·거래소 수정주가·다음 실적 정확한 날짜는 보강이 필요하다.

EPS 가치는 가정별 비교 모델이며 정밀 목표가·개인 투자상담·수익 보장이 아니다. 6월 말 주식수 이후 추가 변동을 완전 대조하지 못했다. 웹과 PDF는 동일 구조화 데이터에서 생성되고 방문 시 AI 호출 없이 제공된다.

- [S1] 기아 2026년 반기보고서 (9월 정정)
- [S2] 기아 2분기 경영실적 회사 발표
- [S3] 삼성증권 기아 기업분석
- [S4] KB증권 기아 기업분석
- [S5] 기아 9월 및 3분기 도매 판매
- [S6] 삼성증권 기아 2분기 리뷰
- [P1] 네이버 일별 기아
- [P2] 네이버 일별 KOSPI